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0. 12. 1.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34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운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지자체 시범운영(전북 무주·장수)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 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표준 운영모델)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 수행에 적절한 표준모델 마련
· 전문인력 수급이나 재정수준 등 다양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운영 모델(공동운영, 통합운영)도 마련
- ② (통합운영 지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광역·기초 통합운영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범위 마련
- ③ (업무 매뉴얼) 인허가 도서검토, 현장점검 등 수행 시 검토항목 제시

2021년부터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①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②건축물 안전점검 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③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수준 등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마쳤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매월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강원도는 광역시·도 중 최초로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021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를 선정 및 공유하여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